

날짜: 5786 년, 12 월 8 일 (2026 년 2 월 5 일)

토라 묵: Tetzaveh (명하라)

주제: 권위와 순복

마가복음 6 장 14-29 절에 기록된 예호슈아께 정결례를 올려드리셨던 당대의 의인 요한의처형은 일회적으로 발생한 정치 범죄가 아닙니다. 이는 지도력, 순종, 그리고 여호와 경외에 관한 성경의 역사에서 나타나는 오래된 동일한 패턴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전 1:9). 이번 토라 포션(출애굽기 27:20-30:10) 및 사무엘상(15:2-34)과 함께 읽을 때, 이는 일관된 성경의 주제를 드러냅니다: 여호와께 대한 순종적 복종에서 분리된 권위는 필연적으로 도덕적 부패로 무너진다. 이 텍스트들은 제사장의 순종과 왕의 심리적 불안정함을 대조하며, 창조주께서 보내신 명령이 아닌 대중의 압력에 좌우되는 정치 지도자의 위험성을 폭로합니다.

이번 주의 토라 묵은 제사장 직분을 통한 거룩한 질서의 확립을 보여줍니다. 메노라는 순수한 기름으로 끊임없이 타올라야 합니다. 대제사장의 의복은 신적 규격에 따라 제작되었으며, 가슴 위에는 "곧으신 권능"의 사명(이름) 을 받은 이스라엘 12 지파들의 이름을 새겨, 상징적인 신성력의 대리성과 그 각각의 이름에 따른 "책임"을 나타냅니다. 분향단은 휘장 앞에 놓여 매일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연기를 올립니다. 이 구체적인 명령에서 즉흥적 요소는 어느곳에서도 발견되지 않습니다. 모든 요소는 면밀하고 정교히 명령되었고, 측정되었으며, 거룩히 성별되었습니다 (속 14:20). 여기서 보장된 권위는 창조적 자율성이 아니라 명령에 따르는 절제된 순종입니다. 제사장은 개인의 명예를 지키거나 대중의 승인을 얻기 위해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의 정당성은 전적으로 여호와 엘로힘, 보이지 않는 곳에서부터 보이는 세계를 드러나게 하신 창조주의 지시에 대한 신실한 복종에서 나옵니다. 여호와의 계명에 철저히 순종하는 제사장의 거룩함은, 옛적부터 계신 그 거룩하신 분의 임재를 지속시킵니다. 그의 순종으로써 맹세하신 언약의 복과 삶의 보장은 그 질서를 여호와께 순복함으로 그와 연합한 한 세대의 영혼 모두 안에서 보존 받게 됩니다.

사무엘상에서 사울에게 부여 주신 왕권은 균열되기 시작합니다. 사울은 여호와를 대적하는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명확한 명령을 받습니다 (출 17:16). 그러나 그는 야각 왕을 살려주고 가장 좋은 가축들을 남겨둡니다. 그는 그 동물들을 제사 드리기 위해 남겨두었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행동을 종교적 용어, 곧 여호와께 예배하기 위함으로 정당화시킵니다. 이에 선지자 사무엘은 성경에서 가장 통찰력 있는 성경의 선언 중 한 말씀으로 즉답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라는 문제는 여호와께 제사 올리겠다는 열심의 의식이 결핍됨을 지적하는 말씀이 아니라, 그 내면에 잠재한 두려움의 영에 기반하는 "왜곡된 충성심"입니다. 그 후에 사울은 결국 스스로 외면했던 문제의 근원을 고백합니다: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목소리를 청종하였음이니이다." 내재한 타의 시선을 먼저 의식했던 두려움의 영이 창조주 여호와의 말씀을 뒤로 하게 만든 무너진 위계질서를 낳은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잠시 권한 대행을 맡게 된 대중의 비위 맞춤이라는 여론으로 대체될 때, 그 권위는 그 순간부터 공허의 영으로 채워집니다.

사울은 그 후이 당분간 외적으로는 왕으로 남아있었지만, 그의 나라는 영적으로 이미 그에게서 찢겨 나갔습니다. 순간적 자아를 최우선한 "선택적 순종"은 "실질적인 반역"임이 증명된 것입니다.

이와 동일한 패턴이 마가복음 6 장에서 다시 나타납니다. 헤롯 안티파스는 미크웨 (정결례) 요하난을 의롭고 거룩한 자로 인식합니다. 그는 요하난의 말을 듣고 심지어 그를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선지자적 진리가 자신의 불법적인 결혼과 정치적 안정을 위협하자 요하난을 투옥합니다. 왕의 잔치에서 손님들의 압력과 경솔한 맹세에 얽매인 헤롯은 요하난의 처형을 명령합니다. 성경 본문은 그의 내면적 번뇌 뿐만 아니라, 체면을 잃지 않으려는 그의 의지 또한 강조합니다. 사울 왕처럼 그도 요하난의 선지자적 권위를 인정하면서도, 심리적 불안과 정신적 오판으로 대다수의 눈치를 보며, 혼돈의 정치, 종교와 사회적인 압력에 굴복합니다. 헤롯 왕의 잔치는, 창조주 여호와 임재하시는 거룩한 장소에 대한 조롱 섞인 흐름으로 전개 됩니다. 출애굽기에서는 지성소의 페로켈(휘장) 앞에서 향이 끊임없이 올라가지만, 마가복음에서는 선지자의 머리가 쟁반에 담겨 나옵니다. 거룩한 창조의 질서가 무법한 자들 가운데 구경거리로 추락 된 것입니다.

이 구절들을 관통하며 하나의 통일된 성경적 원리가 나타납니다: 리더십은 대중의 체면, 그 자신에 대한 평판 관리가 아니라, 오직 모든 생명력-권능의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는 여호와 명령하신 말씀의 순종에 뿌리를 두고 신성하신 임재를 보존하는 권위라는 이상을 제시하며 가르칩니다. 사무엘상은 정치력을 맡았던 한 지도자의 부분적인 순종과 백성의 비위를 우선했던 두려움을 통해 그 신성한 이상이 처참히 부식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마가복음은 정치적 권위가 그 스스로가 망상하는 대중적 이미지를 보호하기 위해 진리를 선포하신 여호와의 참 선지자의 목소리를 침묵시키는 비극적인 정점을 보여줍니다.

윗 성경의 기록에서 가르치시는 대립-대조는 극명합니다: 여호와의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의 이름을 가슴에 품고 거룩하신 분의 존전에 나아갑니다. 사울은 기저한 양심을 무시하고 그 위에 우선적으로 "백성의 승인"을 품고 있습니다. 헤롯은 양심에서 비취 주는 빛, 도덕적인 길에서 등을 돌리고 망설임 가운데, 그가 초대된 "잔치 손님들의 기대"를 품고, 자신의 체면을 우선시 했습니다. 각 경우에서 숙고해야 될 우리의 우리를 향한 결정적인 질문은 동일합니다. "누구의 목소리가 당신의 말과 행동을 지배하는가?" 창조주 여호와의 말씀들을 순종함이 지배하는 곳(육신-공동체-인류의 한 세대)에서는 메노라의 불빛, 기름 부으심이 계속 타오릅니다. 회전하는 그림자가 있는 사람에 대한 눈치와 비교와 체면을 우선시 하는 두려움이 지배하는 곳에서는 각 세대마다 선지자들과 그 선지의 영들이 선포하는 말씀이 침묵 당하며, 그 각각의 육신, 그들이 모인 공동체의 권위는 반드시 부패되며 종말을 맞습니다.

따라서 모세 오경, 선지서와 갱신서들 모두의 “한” 증언은 경고와 교훈을 동시에 제공합니다. 권면과 교정 받기를 거부하거나, 순종을 타협하거나, 의로움보다 명예를 우선시하는 권위는 한 찰라동안 외적인 힘을 유지할 수 있을 수도 있으나, 곧 그것은 여호와 앞에서 영속적인 정당성을 잃고, 받았던 권위들을 상실합니다.

참된 리더십은 맹세나 의식, 혹은 정치적전략으로 확보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인 여호와와의 계명들을 명령하신 여호와께 경외심 어린 “순복”으로 확보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그 육신과 공동체 나라와 민족들 가운데서 밀려나시고, 일시적 권력과 주변의 사람에 대한 두려움의 영으로 대체될 때, 그 곳에서 역동했던 권력의 왕권은 일차적으로는 영적으로, 그 다음에는 실제적으로 붕괴합니다.

샬롬.